

국어 관용표현의 분석과 어휘부 내에서의 처리*

이상억

(국어국문학과 교수)

1.

1. 1. 용어의 정의

관용표현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규칙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인간언어의 주변적이고 예외적인 국면으로 간주되어 이론언어학의 중심적인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의 어휘부 중심의 언어이론이나, 사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산언어학 연구의 전개는 언어학적 연구대상으로서의 관용표현의 위상을 새로이 하였다. 관용표현의 정밀한 언어학적 연구는 오히려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관용표현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수공기 관계에 놓이면서 화석화되어 통사적으로 굳어진 채 사용되고, 의미상 그 결합 요소들 각각 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지니게 된 특수 표현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언어의 전반적인 규칙성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거나 관습상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정의되는 관용표현의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므로 類概念으로서 ‘관용표현’을 사용하고 그 하위의 여러 種概念으로 숙어구문 또는 숙어표현, 합성표현, 속담, 격언, 형식표현, 고사성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용표현의 특성이 그만큼 비문법적이고 모든 특수 어휘군에 두루 관련되어 그 존재 양상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적절한 개념 규정과 대상의 한정을 통하여 하위의 주제를 하나씩 다루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용표현 혹은 관용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일부 합성어나 다의어, 속담, 구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관용어를 의미의 전용이란 면에서 본다면 단일어 가운데에도 관용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단일어로 된 것은 단순히 그 단어가 의미 확대를 일으킨 다의어 용법으로 보아서 논외로 해 두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바탕을 두고 숙어와 넓은 의미의 관용표현에 속하는 다의어, 속담과 은유표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숙어의 생성 및 일반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2장에서 관용표

* 이 글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 논문임.

현의 하위 분야로서 숙어구문을 통사론적으로 한정하고 그 구조를 기술하고 유형화하고자 시도할 것이며, 3장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입', '눈', '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 관용어를 일부 합성어와 속담을 포함해서 의미론적 분석을 해 봄으로써 관용표현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1.2. 숙어구문과 다른 관용표현

넓은 의미의 관용표현이라는 상위개념으로 함께 묶인 숙어구문과 다른 관용표현들은 각기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서로 구분되지만, 특성과 기능에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각각의 차이가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명확한 한계를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 숙어와 다의어

다의어는 단어 차원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로 정의되지만 숙어는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구 또는 절 차원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1) '가다': 집에 가다, 세월이 가다, 음식 맛이 가다, 주름이 가다, 시집을 가다 등등.

'눈': 눈이 좋다, 눈이 나쁘다, 눈을 감다, 눈이 높다

다의어와 숙어의 형성이 모두 의미간의 근접과 유사에 영향을 받은 명칭의 전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형성단위에 있어서 단어와 구나 절로 구별된다. 실제로 숙어구문은 구성요소의 직설적 의미가 나타내는 상황과 숙어적 의미와의 연관이 긴밀하기 때문에 구문의 일부가 다른 표현으로 대치되어 그 상황이 바뀌면 숙어적 의미가 사라진다. 숙어와 다의어의 구별을 언어단위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의어가 문맥과 별개로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머리가 같다, 머리가 좋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2) 숙어와 합성표현

둘 이상의 단어가 대응하여 구성요소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관용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합성표현은 내적 구성이 자유로운 통사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전체가 하나의 단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연속적인—구성요소의 이동이나 삭제, 특히 분리에 의한 제삼요소의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연쇄를 가리키며, 합성명사, 합성부사, 합성형용사, 합성동사 등의 어휘 범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3) 합성명사: 집사람, 들은 풍월, 알다가도 모를 일, 잉꼬부부,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등.

합성형용사: 남다르다, 열토당토않다, 어처구니없다 등

합성부사: 코가 빠뚤어지게, 눈에 불을 켜고, 대문짝만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등.

합성동사: 덮어두다, 뒤집어엎다, 거들떠보다, 날새다, 웃벗다, 발버둥치다, 거드

름피우다 등

3) 숙어와 속담

숙어와 속담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한 언어 사회에서 관용되고 있는 보편적 의미가 부여된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쓰임이 다르다. 속담의 일차적 기능은 비유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유하여 진술할 경우에만 그 기능을 발휘한다. 피비유항과 비유항의 결합에서 속담은 비유항에 자리잡고 사실명제인 피비유항은 상황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 이 때 의미 파악은 두 항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4) 직장 없는 남편에게 바가지 긁기는 누워서 떡먹기다.

속담은 특정 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의 기능을 하므로 화용론적으로 부차적 기능으로 교화와 풍자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숙어는 별도의 교화나 풍자의 기능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속담이 비유성, 교화 또는 풍자성을 잃고 숙어화하거나, 숙어가 속담처럼 쓰일 수도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5)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그가 이번에도 오리발을 내밀거야.

다된 밥에 재 뿌리다. ⇒ 재를 뿌리다

물론 ‘소 귀에 경 읽기’, ‘수박 곁 할기’, ‘독 안에 든 쥐’, ‘개 밥에 도토리’ 등은 속담으로서 교화와 풍자의 기능을 갖지만 합성명사로 사용되거나 ‘-이다’가 붙어 숙어구문처럼 사용될 수 있다.

4) 숙어와 은유표현

숙어는 은유로부터 나와서 그 쓰임이 관용적으로 굳어진 것이지만 형식과 의미의 화석화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은유는 그 쓰임이 창조적이어서 통사 논항의 위치가 열려 있지만 숙어는 다분히 고정된 형태가 반복적으로 쓰이며 관용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의도된 해석과 청자의 해석이 일치한다. 그러나 은유표현의 경우에는 의도된 해석과 청자의 해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은유는 일차적으로 비유적으로 쓰이지만 숙어는 직설적으로 쓰인다. 또한 ‘쏜 살 같다’, ‘집채 같다’, ‘뚱딴지 같다’, ‘찰떡 같다’, ‘철통 같다’, ‘번개 같다’, ‘얼음장 같다’, ‘물 쓰듯하다’, ‘죽은 듯하다’ 같은 비유표현에서는 물론 통사논항의 위치가 열려 있어서 자유 구성이 가능하다.

1.3. 숙어의 생성

숙어는 통시성을 띠는 언어표현으로 그 생성의 배경적 요인으로 언어 경제성과 표현효과를 들 수 있다. 언어생활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그중

일부가 언중의 호응을 얻어 더 넓고 지속적으로 쓰여 관용적인 것으로 정착된 것이다. 숙어 사용의 세대차이는 바로 이러한 통시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오지랖이 넓다, 변죽을 울리다

날이 새다, 초를 치다, 죽을 쑤다

숙어는 일상의 언어가 시가 되기 위하여 한 단계 전너떤 도약의 결과라는 말이 숙어의 표현 효과를 잘 말해 준다. 숙어는 주어진 문맥에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반드시 존재하며, 주로 형식을 덜 갖춘 구어체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숙어는 본래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나타내는 상황과 관용적 의미와의 근접 또는 유사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숙어 생성에 보편적인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귀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유적 표현이 굳어져서 숙어로 직설적으로 쓰이면서 표현이 더 굳어지거나 은유적으로 더 확장을 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합성동사나 합성형용사가 숙어가 더욱 굳어진 예이며, 숙어구문의 능동/피동, 사역/비사역, 명사구 생성 등을 복수의 표현형으로의 확장의 예들이다.

(7) 손이 크다 ⇒ 큰 손, 무릎을 끊다 ⇒ 무릎을 끊리다, 이를 갈다 ⇒ 이가 갈리다

1. 4. 숙어의 특징

숙어의 음운론적 특징으로는 효과적 표현을 추구하는 구어체 발화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초분절적 자질 사용, 음상을 고려한 표현의 선택, 생략 선호, 조사 생략 등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형태론적 특징으로는 일반 자유구문에서는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다른 어휘로 대치될 수 있고, 전체 의미는 대치된 어휘의 의미만큼 바뀌는 반면에 숙어구문에서는 기존 어휘 가운데 일부만을 고정적인 구성요소로 가지므로 선택제약을 어기지 않더라도 일부가 다른 어휘로 대치되면 숙어구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8) 비행기를 태우다; 수송기를 태우다/비행기를 조종하다.

(9) 싸이 노랗다/누렇다: 깡통/쪽박을 차다; 손을 대다/떼다: 입을 열다/다물다 등. 숙어의 통사론적 특징은 먼저 주어, 목적어, 대격 등 일부 논항 위치가 굳어지지 않고 열려 있으며 어순, 조사의 사용, 하위법주화 규칙 등에 있어서 대개 문법적이기 때문에 자유구문처럼 그 통사구조와 숙어구문을 특징짓는 고정부위의 수나 위치에 따라 형식적인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유구문에서 구성요소가 의미상 독자적인 단위가 됨을 전제로하는 재구성(어순 도치, 외부 수식어 첨가, 특수조사 '온/는' '까지' 첨가, 내부 수식어 첨가 등)이나, 관형화, 대명사화 등의 통사적 조작에서 자유구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은 있다.

- (10) ㄱ. 그가 산통을 어처구니없게 다 깼어. 산통은 그가 다 깼어. 산통은 다 깨졌어.
 ㄴ. 그녀가 바가지를 자주 긁는다. 바가지를 아내가 긁는다. 그녀는 바가지까지
 긁는다.
 ㄷ. 그가 주름을 처음부터 잡은 셈이지.
 ㄹ. 그는 배가 아마 아플거야.
 ㅁ. 그녀가 손을 아직도 벌리고 있어.

- (11) 그녀가 긁은 바가지, 그가 먹은 미역국, 그가 맞은 바람, 그가 씻은 입.

물론 관형화는 구성요소 사이의 의미관계를 바꾸어 의미구조를 재구성하므로 의미의 유연성이 덜하거나 대유표현에서 나온 숙어구문은 관형화할 경우 숙어구문의 의미는 상실된다. 이상의 통사적 조작에서 숙어구문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두가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체어와 결부된 숙어나 외적 상황에서 유래한 숙어는 대유표현에서 유래한 숙어에 비해 제약이 덜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숙어구문이 의미적으로 비합성적이라는 점은 숙어의 예외적 특징으로 흔히 지적되 왔지만, 숙어가 은유표현에서 유래했음을 고려할 때 각 구성요소의 직설의미만으로 규정될 수 없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어휘의미의 합은 아니나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은 아니며,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투명하고 직설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 유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2) 국수를 먹다, 두 손 다 들다, 손을 대다/떼다, 아픈 데/곳을 찌르다

특히 상황의 유사에서 비롯된 숙어는 명사와 동사 부분이 독자적인 의미 단위로 인식된다.

2. 관용표현의 통사론

2.1. 예비적 지적

관용표현을 숙어구문이나 합성표현 또는 관용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은 복합적인 언어단위의 연쇄에 대한 통사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숙어구문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듯하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숙어구문의 통사론을 구성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간략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숙어구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숙어구문의 본질을 해명하여, 자연언어 내에서 숙어구문의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어구문의 의미 연구와 더불어, 숙어구문의 통사행태의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숙어구문의 한정, 숙어구문의 유형화, 숙어구문 자료체의 구축 등이 필수적인 선행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선행작업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숙어구문을 엄격하게 통사론적으로 기술하고, 체계화하여 그 의미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숙어구문자료의 다양한 활용-단일어/이개어사전 편찬 또는 자연언어 처리 프로그램의 지원 등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체 구성의 방법론적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2. 숙어구문의 정의와 통사론적 한정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적 속성을 지니는 언어단위의 복합적 연쇄를 숙어구문으로 한정한다.

- (가) 단문 또는 단문의 연쇄차원에서 기술될 수 있다.
- (나) 의미구성이 비합성적 non-compositionnal이다.
- (다) 둘 이상의 고정부위를 내포하는데, 그중 하나는 반드시 단문 구조 내에서 통사적으로 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있다/없다, -이다/-아니다를 포함한다.
- (라) 고정부위의 응결 또는 고정성frozenness은 고정/비고정의 양분대립에 의해 양가적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도의 변이를 갖고 한정된다.
- (마) 응결 또는 고정성의 개념은,
 - (ㄱ) 의미해석의 불투명성;
 - (ㄴ) 어휘분포의 극단적 제약;
 - (ㄷ) 계열체paradigme 구성의 제약;
 - (ㅅ) 명사구 구성제약;
 - (ㅁ) 보조사(양태조사) 분포의 제약;
 - (ㅂ) 양상modality, 시상tense/aspect 제약;
 - (ㅅ) 구문대응의 제약 등등의 변수의 복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속성에 의거하여 숙어구문을 특히 다음과 같이 합성표현과 구별하고자 한다. 합성표현은 형태론적 차원에서 둘 이상의 요소로 분할될 수 있는 복합적 언어 단위의 연쇄로서,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기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기능한다 함은 그것이 단일단어와 마찬가지로 동사나 명사 등으로 범주화될 수 있고 분포가 자유롭다는 점을 함축한다.

- 합성동사: 내려가다/내려오다, 발벗고 나서다, 귀담아 듣다,
놀고먹다…
- 합성형용사: 남다르다, 열토당토않다, 그만그만하다, 피나는 (노력),
내로라 하는 (사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
- 합성명사: 들은 풍월, 큰 집…
- 합성부사: 울며 겨자 먹기로, 눈깜짝할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같은 값이면…

2.3. 속어구문의 유형

(가)-(마)의 속성의 집합으로 속어구문을 정의할 때, 속어구문은 우선 그 술어부위의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속어동사구문

- (1) 기영이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코가 납작해졌다.
- (2) 한 눈 팔지 말고 똑바로 해!
- (3) 이걸 누구 코에 바르냐?

— 속어형용사구문

- (4) 그 녀석은 싹-(수 + E)가 노랗다.
- (5) 종수는 곁다르고 속다른 녀석이다.

— 있다/없다형 속어구문

- (6) 태환이는 돈 끌어 모으는 데에는 뭐 있다
- (7) 그의 말도 일리가 있다.
- (8) 종운이 말은 종잡을 수가 없다.
- (9) 그는 피도 눈물도 없다.
- (10) 이 물건은 신기하기 싹이 없다.

— -이다/-아니다형 속어구문

- (11) 산삼은 부르는 게 값이다.
- (12) 이런 문제는 누워서 떡먹기다.
- (13) 요즈음 내 꿀이 말이 아니다.
- (14) 그의 고집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2.4. 속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

술어 위치에 실현되는 요소가 동사어휘로 특징지어지는 속어동사구문의 통사구조를 기술하기 위하여 우리는 M. Gross의 어휘 문법의 방법론을 채택해 보기로 한다.¹⁾ 이러한 시도는 이미 홍재성(1993)에서 소개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분류체계를 조금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국어 속어동사구문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겠다.

1) 이에 대해서는 M. Gross(1982, 1990, 1991)를 참조할 것.

1) 단문구조의 숙어동사구문²⁾I. N₀ C₁-이 V

거덜이 나다 ³⁾	살맛이 나다
끌장이 나다	살판이 나다
(동 + 바닥)-이 나다	젖비린내가 나다
촌티가 나다	철이 (나다 + 들다)
바람이 나다	탄로가 나다
(뿔 + 뿔따귀)-가 나다	개같이 안 나다

II. N₀ C₁-을 V

볼장 다 보다 (네 + E)	활개를 치다
쓴맛 단맛 다 보다	물불 안 가리다
욕을 보다	(고개 + 눈 +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다
(햇 + E)빛을 보다	아랑곳 하지 않다
(가지 + 새끼)-를 치다	사죽을 못 쓰다
코웃음을 치다	쪽을 못 쓰다
판을 치다	

III. N₀ C₁-을⁰ V1. C₁-을⁰ = C₁-에

(벽 + 암초)-에 부딪치다
인정에 흐르다

2. C₁-을⁰ = C₁-에서

입에서 살살 녹다

3. C₁-을⁰ = C₁-로

콜로 가다

2) 숙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을 위한 약호는 다음과 같다.

N_i: 자유명사구. 지수 *i*는 통사적 논항을 구별해 준다.

(N₀는 주어, N₁는 제1보어 등)

C_i: 고정명사구. 지수 *i*의 의미는 자유명사구의 경우와 동일

-을⁰: -을 이외의 비대격조사 표지. -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E_c: 단문구성 전체가 고정된 표현의 표기

3) 각 유형을 예시하는 자료는 고정부위만을 포함하는 예구의 형태로 제시한다. 또한 가능한 예를 모두 인용하지 않고, 한·두 가지 동사어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만을 보이기로 한다. 부정을 내포한 예는, 긍정/부정의 양상변이가 불가능해서 부정표현으로만 고정된 경우가 된다.

IV. $\underline{N_0 \ C_2}$ -의 $\underline{C_1-을} \ V$

유종의 미를 거두다

벼룩의 간을 내먹다

V. $\underline{N_0 \ N_2}$ -의 $\underline{C_1-을} \ V$

N-의 아픈 (태 + 곳)-을 (건드리다 + 찌르다)

N-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

N-의 뒤를 밟다

N-의 굴래를 벗다

N-의 발목을 잡다

N-의 낙인을 찍다

N-물을 먹다

N-값을 하다

VI. $\underline{N_0 \ N_2}$ -의 $\underline{C_1-을} \ V$

$\underline{C_1-을}^0 = \underline{C_1-에}$

N-의 눈-(밖 + E)-에 나다

N-의 (눈 + 마음)-에 들다

N-의 입에 오르내리다

VII. $\underline{N_0 \ C_2-을}^0 \ \underline{C_1-이} \ V$

$\underline{C_2-을}^0 = \underline{C_2-에}$

엉덩이에 뿔이 나다

허파에 바람이 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눈에 무엇이 씌이다

VIII. $\underline{N_0 \ C_2-을}^0 \ \underline{C_1-이} \ V$

1. $\underline{N_2-을}^0 = \underline{N_2-에}/\underline{P_데에}$

금이 가다

헬안이 되다

손이 가다

구멍이 뚫리다

이꼴이 나다

눈이 멀다

신물이 나다

인이 박히다

2. $\underline{N_2-을}^0 = \underline{N_2-}(에)/\underline{-데에}$

(넌더리 + 넌덜머리)-가 나다

들통이 나다

물이 들다

말이 먹히다

불뚱이 튀다

3. $\underline{N}_2-\underline{\text{을}}^0 = \underline{N}_2-\underline{\text{에서}}$

잔뼈가 굵다

3. $\underline{N}_2-\underline{\text{을}}^0 = \underline{N}_2-\underline{\text{와}}$

손발이 맞다

죽이 맞다

IV. $\underline{N}_0 \ \underline{N}_2-\underline{\text{을}} \ \underline{C}_1-\underline{\text{을}} \ V$

(죽 + 죽사발)-을 만들다

손을 보다

맛을 보다

주름을 잡다

비행기를 태우다

V. $\underline{N}_0 \ \underline{C}_2-\underline{\text{을}} \ \underline{C}_1-\underline{\text{을}} \ V$

불난 데에 기름을 봇다

눈에 불을 켜다

다된 밥에 재를 뿌리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다

목에 힘을 주다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다

XI. $\underline{N}_0 \ \underline{N}_2-\underline{\text{을}}^0 \ \underline{C}_1-\underline{\text{을}} \ V$

1. $\underline{N}_2-\underline{\text{을}}^0 = \underline{N}_2-\underline{\text{애}}/\underline{P} \ \underline{\text{데에}}$

박차를 가하다

손을 대다

귀를 기울이다

맛을 들이다

찬물을 끼얹다

눈-(을 + 이) 뜨다

얼굴을 내밀다

종지부를 찍다

2. $\underline{N}_2-\underline{\text{을}}^0 = \underline{N}_2-\underline{\text{애}}/\underline{\text{에게}}$

시집을 가다

학을 폐다

장가를 (가다 + 들다)

촛점을 맞추다

발을 끊다

본때를 보이다

손을 내밀다

바가지를 쓰다

바람을 (넣다 + 불어넣다)

열을 올리다

다리를 놓다

꼬리를 치다

눈독을 들이다

3. $\underline{N}_2-\underline{\text{을}}^0 = \underline{N}_2-\underline{\text{에서}}/\underline{\text{에게}}(\text{서})$

등을 돌리다

꼴탕을 먹다

손을 떼다	미역국을 먹다
바람을 맞다	바가지를 쓰다

4. $\underline{N}_2\text{-}\underline{\text{을}}^0 = \underline{N}_2\text{-}\underline{\text{와}}$

입을 맞추다

담을 쌓다

손을 잡다

5. $\underline{N}_2\text{-}\underline{\text{을}}^0 = \underline{N}_2\text{-}\underline{\text{로}}$

발돋음을 하다

XII. $\underline{N}_0\ \underline{N}_3\text{-}\underline{\text{의}}^0\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0\ \underline{C}_1\text{-}\underline{\text{을}}\ V$

N-의 말에 콧방귀를 뀌다

N-의 가슴에 못을 박다

N-의 등에 칼을 꽂다

N-의 얼굴에 (똥 + 먹)-칠을 하다

XIII. $\underline{N}_0\ \underline{N}_1\text{-}\underline{\text{을}}\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 V$

코빼기를 볼 수 없다

XIV. $\underline{N}_0\ \underline{N}_1\text{-}\underline{\text{을}}\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0\ V$ 1.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0 =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에}}$

손에 넣다

불문에 불이다

입에 담다

입에 올리다

염두에 두다

꿈에도 생각 못 하다

코 앞에 두다

2.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0 =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로}}$

도매금으로 넘기다

이상한 눈으로 보다

XV. $\underline{N}_0\ \underline{C}_1\text{-}\underline{\text{의}}\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 V$

눈물이 앞을 가리다

XVI. $\underline{N}_1\ \underline{C}_1\text{-}\underline{\text{의}}\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0\ V$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0 =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다

XVII. $\underline{N}_0\ \underline{N}_1\text{-}\underline{\text{의}}\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0\ V$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을}}^0 = \underline{C}_2\text{-}\underline{\text{에}}$

(명예 + 위신 + ...) - 은 땅에 떨어지다

XVIII. $\underline{N}_0\ \underline{N}\text{-}\underline{\text{고}}\ \underline{C}_1\text{-}\underline{\text{을}}\ V$

입을 모으다

XIX. N₀ P₂-에게 P_{-고} C₁-을 V
못을 박다

XX. P_C

1. 명령문

꿈 깨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두고 보자!	웃기지 마라!
엿-(이나 + E) 먹어라!	

2. 의문문

이걸 누구 죄에 바르냐?

3. 평서문

별 끌 다 보겠다.

2) 복문구조의 숙어동사구문

I. P_C-고

되로 주고 말로 받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II. P_C-는데

남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다

III. P_C-다가

(귀 + 입)-은 두었다가 뭐 하니?

IV. P_C-도

입이 열 (개 + E)-라도 할 말이 없다
들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V. P_C-면

죽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한다
둘째 가라면 서러워한다

3) 기타유형

P-라면 껴뻑 죽는다

P-면 어디 덧나니?

P-면 나와 보라고 해.

N-은 무슨 놈의 얼어죽을 N-이야

N-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

2.5. 숙어동사구문의 자료체 구축을 위하여

우리는 이상에서 소개한 숙어동사구문의 형식적 유형화의 틀에 따라 가능한 한 총망라하여 술어동사구문을 체계화하는 것이 숙어구문의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 체계를 좀더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히 3)의 기타 유형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이고, XV~XX가 하나의 유형으로 성립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예들을 포괄하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⁴⁾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론은, 숙어구문의 의미연구, 또는 숙어구문자료의 다양한 활용-각종 인쇄 언어사전 편찬이나, 자연언어처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전산사전의 구축 등-을 염두에 둘 때, 상당히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첫번째 단계의 연구이고, 두번째 단계는 각 유형에 속하는 각 숙어동사구문의 통사·어휘적 속성을 정밀하게 분석 기술하는 작업이 된다고 하겠다. 이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위의 2.2.(마)에서 열거된 (ㄱ)~(ㅅ) 사항에 관련된 속성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

4) 나아가서, 숙어형용사구문도 2.2.에서 예시한 같은 틀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합성부사 역시 유사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합성부사는 내적인 구성이 단문의 형상을 지니면서 전체 연쇄가 고정되어 있는데, 연결어미에 의해 구별되고, 전체 연쇄가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이들 부류는 우선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P_c-개: 딱 부러지개, 입에 침이 마르개

P_c-고: 물불 안 가리고, N-이 떠나가라고, 꼬리를 물고

P_c-나: 어느 모로 보나, 그러나 저려나

P_c-도록: 귀가 닳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P_c-듯(이):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계눈 감추듯

P_c-듯: 죽이 되든 밥이 되든

P_c-면: 말하자면, 하필이면

P_c-아(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앞을 다투어

P_c-지: N-이 뭔지, 어쩐지, 그러면 그렇지

P_c-지만: 실례지만

P_c-어도: 모르긴 몰라도, 그러지 않아도

P_c-없이: 눈코 뜰 새없이, V-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여기에, N_c-조사의 구조를 갖는 부류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N_c-로: 될 수 있는 대로, 그야말로

N_c-에: 엉겹결에, 삽시간에, 내친 (걸음 + 김)-에

N_c-처럼: 그림자처럼, 헌신짝처럼

N_c-같이: 귀신같이, 깜쪽같이, 쏜살같이

의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3.에서는 관용표현의 의미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3. 관용표현의 의미론: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의미유형의 문제

3.1. 도입

관용표현을 둘러싼 연구에서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각 분야가 서로 다른 국면을 조명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돋고 있다. 이러한 하위 분야들 중 이미 통사론적 기술에 대해서는 그 속성 분석과 형식적 분류를 보였으므로 이 章에서는 주로 의미론적 (내지 형태론적) 기술에 힘쓰겠다. 과거의 국어에 대한 연구 중에 관용표현의 의미론적 특징을 대략 기술한 두 편의 논문을 우선 소개한다.

안경화(1986)는 숙어(관용표현을 가리킴)는 직설의미 즉 문자대로의 뜻에서는 비합성적이라 했다. 직설의미의 합으로는 숙어의 관용의미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바가지를 긁다’ ‘바람을 맞다’ 등의 직설의미로는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경우에, 각각 ‘잔소리하다’ ‘약속의 어김을 당하다’라는 관용의미로 읽으면 적당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특징은 숙어가 은유표현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용의미가 어휘의 직설의미의 합은 아니나, 그렇다고 두 의미가 전혀 憨意的은 아닌有緣性을 띠고 있다고 본다. 어느 정도 합성적 관용의미를 가진 경우는 의미상 투명하기 까지 하다고 한다.

(1) 국수(를) 먹다 [(남이) 결혼하다]

(두) 손을 들다 [포기하다]

(2) 손(을) 대다/떼다 [관계를 맺다/끊다]

아픈 데를/곳을 찌르다 [약점 따위를 언급하다]

직설의미와 관용의미가 근접된 (1)이나 유사한 (2)에서 의미가 투명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부 상황에 대한 은유표현에서 유래한 숙어 (3)을 보면 직설의미와 관용의미 간에 대응이 존재하고 그 관용의미는 합성적이라는 것이다.

(3) ㄱ. 구멍(이) 뚫리다/나다 [차질이 생기다]

ㄴ. 큰소리(를) 치다 [허풍을 떨다, 기세를 떨치다]

ㄷ. 다리(를) 놓다/건네다 [중계 역할을 하다]

위의 예에서 ‘구멍’이 ‘차질’에 대응하듯 각기 대응 단어가 있다. 그리고 상황의 유사에서 비롯된 숙어는 명사와 동사 부분이 독자적인 의미 단위로 인식된다고 본다. 이런 대응이 신체어를 쓴 은유표현에서는 좀 막연하다.

(4) ㄱ. 손(을) 대다 [관계를 맺다]

- ㄴ. 손(을) 잡다 [제휴하다]
- ㄷ. 손(을) 빌리다/내밀다 [도움을 청하다]

(4)에서는 ‘손’에 동사가 달리 붙어 그 의미가 달라진다. 동사 부분이 명사 부분보다 관용의미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다고 보는데, 이는 뒤에서 점검해 볼 만한 주장이다. 이 점에서 명사 부분에 독자적 관용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손’을 ‘관계 맺는 수단’으로, ‘대다’를 ‘(관계)를 맺다’로 막연히 대응시킬 수 있다고 했다.

대유 표현에서 유래한 (5)는 관용의미가 전체 구에 상용된다고 보아 한 의미 단위로 간주하였다.

- (5) ㄱ. 깡통(을) 차다 [동냥질하다, 망하게 되다]

- ㄴ. 눈(을) 감다 [죽다]

비교적 불투명한 관용의미 한 덩어리만을 전체 구에 대응시키려는 다음의 경우도 있다.

- (6) ㄱ. 비행기(를) 태우다 [추켜세우다]

- ㄴ. 학(을) 떼다 [질리게 되다]

강위규(1988)도 관용어의 의미적 특성을 非合成的 구조로 보는 점이 앞서와 같다. ‘미역국을 먹었다’의 표현은 지시적 대응물(referent)을 갖지 못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뜻의 부조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관용어의 각 구성요소는 독자적인 뜻이 없어지므로, ‘낙방하다’라는 새 뜻을 지닌 한 단일 어휘소를 형성한다고 한다.

형태소에 이형태가 존재하듯 관용어에도 변이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7) ㄱ. 속이 상하다

- ㄴ. 속이 썩다

- (8) ㄱ. 서슬이 시퍼렇다

- ㄴ. 서슬이 푸르다

그러나 ‘콧대가 세다’가 ‘콧대를 세우다’로, ‘얼굴이 뜨겁다’가 ‘얼굴이 뜨거워진다’로, ‘등골이 오싹하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다’로 바뀐 것들은 변이형이나 순수관용어로 보기에는 어려워 과생관용어라 처리하였다.

관용어의 형성은 Hockett(1958)이 ‘새로운 표현 ⇒ 임시어(nonce-form) ⇒ 관용어’로 설명했고, Searle(1979)이 ‘비유 ⇒ 죽은 은유(dead metaphor) ⇒ 관용어’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관용어를 통시적으로 설명하려는 것보다는 공시적 증거를 기반으로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비유적 표현이 뜻의 확장이나 특수화를 겪어 한 관용어가 된다고 본다.

구성요소의 뜻과 비유적 뜻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투명과 불투명의 척도를 다음에 보이겠다.

(9) 글자대로	은 유	관용어		
i) 투명	ii) 반투명	iii) 반불투명	iv) 불투명	
책을 읽다		누은 소 타기	좀이 쑤시다	바가지를 긁다

직설의미와 관용의미 또는 글자대로의 뜻과 비유적 뜻과의 관계가 가장 유연적인 표현을 半透明이라 하고, 가장 無緣의인 표현을 불투명이라 한다면 불투명의 가장 끝에 순수관용어가 있다는 것이다. 半不透明 단계에는 은유와 관용어가 포개진다. 비유적 표현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비유적 표현과 관용어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관용어의 생성은 대개 비유적 확장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과 관용적 표현을 분명히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용표현의 통사 의미적 특성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한 것이 동음성이다. 의미의 단순한 합이 관용어가 아니라는 증거로 동음의 짝을 들고, 순수관용어는 이중노출(double exposure)을 구성한다고 했다. 즉 상황에 따라 구성요소의 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합성적이 아닌 새 관용적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10) ㄱ. 속이 썩어서 더 이상 못 보겠다.

- ㄴ. 철수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 ㄷ. 눈 감아 주어라.
- ㄹ. 너 맛 좀 볼래.

(10)의 표현은 정상적이고 예측될 수 있는 결합형이라 직설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는 '화내다, 미리 좋아하다, 묵인하다, 혼나다' 등의 관용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11)은 (10)과 다르다.

(11) ㄱ. 미꾸라지 용되었다.

- ㄴ. 구름 잡다.
- ㅁ. 애간장을 태우다.
- ㄹ. 좀 쑤시다.

(11)에서는 글자대로의 직설의미란 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한편으로는 은유적 표현에 관련되고 다른 편으로는 관용어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관용어와 비유적 표현은 구별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장치로 이 동음성의 짝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동음성의 기준은 'X는 Y같이...'에서처럼 '같이, 처럼...' 등의 비유적 표지를 가지는 명시적 직유뿐만 아니라, 'X는 Y다' 와 같은 은유적 형태도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 보면 (10)은 순수관용어가 될 수 있지만, (11)은 제외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기준은 관용어와 여러 면에서 포개지는 속담

이나 격언 등을 구분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상의 인용에서 마지막 부분의 관용어와 속담의 구분 기준은 과연 그렇게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관용표현의 정의를 넓게 잡아 그 속에 속담도 넣는 것이 편안할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가령 심재기(1986)에서는 어휘적 관용표현에 속어 등이, 어구 및 문장 차원의 관용표현에는 속담 등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원래 속어에는 어휘적 속어(knucklehead, turncoat 등)와 구절적 속어(How goes the enemy? [What time is it?의 뜻])가 있다.⁵⁾ 본고에서는 구절적 속어의 확장영역 속에 속담을 포함하여 기술하는 입장은 취하겠다. 왜냐하면 위에 인용한 (10)과 (11)의 차이가 결코 관용어와 속담 구분에 유효할 수는 없고, 속담은 '어휘화가 될 수 있는 비유적 표현' 정도로 정의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관용어(속어)와 속담의 엄격한 구분은 유보해 두겠다.

3. 2. 관용표현의 의미론적 분류

관용표현 내지 속어를 통사론적으로 분석 기술하는 일은 앞 장에서 했기에 여기서는 그 의미론적 측면에서 분석 기술하려 한다. 본래 통사론적 특징을 분석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관사생략 등의 특이한 제약이 전 대상자료 중 2~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Maurice Gross교수도 "8,000여개 속어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통사적 특이성을 보이는 속어문의 예는 극히 제한된 수에 불과하다." (한정길 1986: 50)고 하였다. 물론 통사적 특성을 경시해 버리자는 취지로 이런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의미론적 분석이 왜 필요하며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합성어 즉 어휘적 속어의 의미론적 분석에 의한 분류는 대략 다음과 같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 ㄱ. 합성명사류

1) 은유나 직유 등이 기제로 작용한 듯 보이는 예들

수식성분은 비유에 있어서의 보조관념이 되고 피수식성분은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 옥동자, 구슬땀, 개구리해엄, 호랑이선생님, 무우다리, 장대비, 잉꼬부부, 회오리바람(첫 3 예는 사전에도 등재됨).

2) 대유(代喻)적으로 사용된 단어들

여럿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드는 제유(提喻)에 의한 표현과 속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환유(換喻)표현이 있다.

예: 다홍치마, 국물, 화이트칼라, 사각모, 단발머리, 까까머리

5) 김영석, 이상억(1992) 참조.

(여기까지는 사전에 등재됨), 가시방석, 형광등, 뜬구름,

cf. 띄어쓴 구절적 숙어로서 관련될 만한 내용인 것들:

온실의 화초, 새발의 피, 수박 걸 훑기.

3) 의미전용

어느 정도의 유연성(有緣性)은 있으나 의미의 전용에 의해 지시내용이 바뀌게 된 경우들이다.

예: 공부벌레, 입방아, 콧방귀, 꿀밤, 흰소리, 큰애기(큰며느리), 옷걸이, 암탉.

4) 의미의 확대 및 축소

확대의 예: 콧뵈기, 피죽, cf. 들은 풍월.

축소의 예: 바지저고리, 큰집, 큰소리, 큰아버지.

5) 의미의 추상화 및 미화

추상화의 예: 끌머리, 낯가죽, 콧대, 납작코, 눈독, 까막눈, cf. 그림의 떡.

미화의 예: 밤손님, 양상군자, 여드름박사.

6) 기타

예: 눈먼돈, 가는귀, 입찬소리, cf. 제눈에 안경.

ㄴ. 합성동사류

1) 다의어를 포함한 경우

예: 위아래없다, 앞뒤모르다, 목자르다, 벼락맞다, 다리놓다.

2) 결합과정에서 의미전용이 일어난 경우

예: 머리깍다, 옷벗다, 날새다, 국수먹다, 손가락걸다.

3) 특수한 동사와 결합하는 구조

예: 거드름피우다, 오해사다, 귀먹다, 발비둥치다.

cf. 구들장을 지다.

위와 같은 틀에 의해 구절적 숙어도 분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cf.(참조표시) 뒤에 몇 개의 구절적 숙어 예를 보인 바 있지만 이외에도 문장 형태를 갖춘 긴 숙어표현도 분류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3.3.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의미 유형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의미 유형을 살펴 보기 위해 본 연구의 예비 작업으로 모은 관용표현의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관용표현은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맨 앞에 명사(또는 체언)가 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우선 명사류에 의한 의미 유형을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이 때에 명사 논항이 둘 이상 있을 때는 語頭(또는 文

頭)가 아니더라도 뒤의 語中(또는 文中) 위치에 나오는 명사 논항을 주목하기도 해야 한다.

차후 단계로는 항상 語末(또는 文末)에 오는 동사/형용사(또는 용언)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용표현 목록을 逆順 사전식으로 재정리 해야 한다. 즉 서술어의 형태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놓아야 그 의미유형을 포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명사류부터 논해 보자.

1) 명사류의 의미 유형

관용표현을 정상 어순에 따라 분류해 보면 대개 논항들 중 한 항(물론 하나뿐인 경우는 그것만)이 語頭에 와서 동일한 단어들끼리 무리를 이룬다. 대체로 신체 관계어들이 압도적으로 눈에 띠는 上位 무리를 짓는데 그들부터 빙도 순위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눈' : 신체어1

우선 관용표현에 가장 많이 동원되는 단어는 '눈'이다. 신체어들 중에도 '눈'은 숙어 생성에 관여시킬 가장 좋은 소재로서 선호된 듯하다.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그 만큼 중요시하였다는 이야기다.

(13) 가. '눈' 이 단독으로 쓰인 예

- 1) 눈 가리고/감고//별리고 아옹/에비야 한다.(속담)(/는 유사, //는 반대 표현)
- 2) 눈 감으면 코 빼어/베어 가는/먹는 세상/인심
- 3) 는 깜짝할 사이
- 4) 눈 딱 감다.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다. 잘못을 못 본 체하다. 처한 조건에 순응하다.]
- 5) 눈 뜨고 도둑맞는다.(속담)
- 6) 눈 뜨고 볼 수 없다.
- 7) 눈 뜨고 絶命한다. [몹시 한을 품고 죽다.]
- 8) 눈 먼 개 젖 탑한다. (속담) [제 능력 이상의 짓을 한다.]
- 9) 눈 먼 고양이/충 길발 베듯/든듯 (속담) [목표 없이 여기 저기 떠들고 다니다.]
- 10) 눈 먼 고양이/구렁이 꿩의 알 굴리듯/달걀 어루듯 (속담)[소중히 아껴 다룬다.]
- 11) 눈 먼 놈이 앞장선다. (속담)[못난 놈이 남보다 먼저 나선다.]
- 12) 눈 먼 망아지/말·워낭 소리 듣고 따라 간다.(속담)
[주인이 없이 시키는 대로 따라 간다.]
- 13) 눈 먼 말 타고 벼랑을 간다.(속담)
- 14) 눈 먼 사랑
- 15) 눈 먼 소경더러 눈 멀었다 하면 성낸다.(속담)

- 16) 눈 (밖)에 나다.
- 17) 눈도 거들떠 보지 않다.
- 18) 눈(썹)도 까딱/깜짝하지 않는다.
- 19) 눈썹 새에 내 川자를 누빈다.
- 20) 눈보다 동자가 크다. (속담) [배보다 배꼽이 크다.]
- 21) 눈 않는 놈 고춧가루 넣기. (속담)
- 22) 눈 어둡다 하더니 다홍고추만 잘 땀다. [속 마음이 음흉한 사람. 남의 일은 평계만 대며 도와 주지 않는 사람.]
- 23) 눈에 거슬리다.
- 24) 눈(에) 거칠다.
- 25) 눈에 걸리다. [눈에 거슬리다. 눈에 들어오다.]
- 26) 눈에 나다.
- 27)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 28) 눈에 독이 오르다.
- 29) 눈(에) 들다. [마음에 들다. 눈에 보이다.]
- 30) 눈에 띄다/뜨이다. [발견되다. 두드러지다.]
- 31) 눈에 모를 세우다.
- 32) 눈에 무엇이 썩었는지.
- 33) 눈에 밟히다. [잊으려 해도 눈에 보이는 것 같다.]
- 34) 눈에 불을 켜다. [탐내어 눈을 빛내다.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다.]
- 35) 눈에 불이 나다/돈다. [몹시 밉다. 몹시 화가 나다.]
- 36) 눈에 삼삼 귀에 쟁쟁.
- 37) 눈에서 번개가 번쩍 나다.
- 38) 눈에 선하다.
- 39) 눈에 설다/서투르다.
- 40) 눈에 쌍심지를 켜다/돋우다. [증오하는 감정을 드러내며 눈을 부릅뜨다.]
- 41) 눈에 쌍초롱을 켜 달다. [악에 반쳐 꼭 찾겠다고 팻대를 올리다.]
- 42) 눈에 藥 할래도 없다. (속담) [조금만 있어도 되는 量도 없다.]
- 43) 눈에 어리다.
- 44) 눈에 없다. [眼中에 없다. 관심 밖이다. 업신여기다.]
- 45) 눈(에) 익다.
- 46) 눈에 차다.
- 47) 눈에 칼을 세우다.

- 48) 눈에 콩끼풀이 씌었다. (속담)[앞이 가리워져 보지 못한다.]
- 49) 눈에 헛거미가 잡히다. [배가 몹시 고프다. 虚欲이 치밀어 바로 보지 못하다.]
- 50) 눈에 흙이 들어가다. [죽다.]
- 5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속담)
- 52) 눈에서 딱정벌레가 왔다 갔다 한다. (속담)「현기증으로 정신이 없다.」
- 53) 눈 위의 혹. [자기 실력보다 나아 방해가 되는 윗사람.]
- 54) 눈의 안경.
- 55) 눈은 두었다 무엇하나? <‘눈’ 대신 다른 말도 가능>
- 56) 눈은 있어도 망울은 없다. (속담)[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정확히 관찰할 줄 모른다.]
- 57) 눈은 풍년이나 입은 홍년이다. (속담)
- 58) 눈(을) 감다. [죽다. 보고도 못 본 체하다.]
- 59) 눈(을) 거치다. [글 따위를 한번 대충 보다.]
- 60) 눈(을) 기(이)다. [눈을 속여 슬쩍하다.]
- 61) 눈(을) 까뒤집다.
- 62) 눈(을) 꺼리다.
- 63) 눈을 끌다. 「호기심을 일으켜 보게 하다. 마음이 쓸리다.」
- 64) 눈(을) 돌리다. [(시선을 돌리다!). 관심을 기울이다.]
- 65) 눈(을) 뒤집다./뒤집어 쓰다. [열중하여 정신을 잃다.]
- 66) 눈을 떠도 코 베어 간다.(속담)
- 67) 눈을 떠야 별을 보지. (속담)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필요한 일을 차례대로 해야 한다.]
- 68) (-에) 눈을/이 뜨다./뜨이다.
- 69) 눈(을) 맞추다. [(눈을 마주 보다). 사랑하는 눈치를 보이다.]
- 70) 눈(을) 부라리다.
- 71) 눈(을) 불이다.
- 72) 눈(을) 속이다.
- 73) 눈(을) 셋고 봐도 안 보인다./볼 수 없다.
- 74) 눈을 의심하다.
- 75) 눈(을) 주다. [눈길을 들려 보다. 시선을 주어 무슨 뜻을 전하다.]
- 76) 눈(을) 팔다.
- 77) 눈(을) 피하다.
- 78) 눈(을) 흘기다.

- 79) 눈(이) 가다.
- 80) 눈이 가매지게/도록 [몹시 기다리는 모양]
- 81) 눈(이) 꺼지다.
- 82) 눈(이) 나오다. [심히 꾸지람을 듣다. 엄청나게 비싸다. 몹시 고되다.]
- 83) 눈(이) 높다. [좋은 것만 탐한다. 鑑識力이 높은 수준이다.]
- 84) 눈(이) 돌다. [몹시 바쁘다.]
- 85) 눈(이) 동그래지다/동그라지다.
- 86) 눈(이) 뒤집히다. [환장을 하다. 참혹한 일로 제 정신을 잃다.]
- 87) 눈이 등잔만하다.
- 88) 눈(이) 많다. [보는 사람이 많다.]
- 89) 눈(이) 맞다. [마음이 서로 통하다. 남녀의 사랑이 짜트다.]
- 90) (-에) 눈(이) 멀다. [시력을 잃다. 한 가지 일에만 골똘히 마음을 쓴다.]
- 91) 눈(이) 무디다.
- 92) 눈(이) 밝다.
- 93) 눈(이) 별겋다.
- 94) 눈이 보배다.(속담)
- 95) 눈(이) 빠지도록/게 기다리다/나무라다. [몹시 초조하게 기다리다. 꾸지람을 호되게 듣다.]
- 96) 눈(이) 빠다.
- 97) 눈(이) 시다. [아주 많이 보아 신기한 맛이 없다.]
- 98) 눈(이) 시퍼렇다. [멀쩡히 살아 있다.]
- 99) 눈이 아무리 밝아도 제 코는 안 보인다.(속담)
- 100) 눈(이) 어둡다.
- 101) 눈이 저울이다.(속담) 「눈짐작이 잘 들어맞는다.」
- 102) 눈이 캄캄하다. [정신이 아찔하여 생각이 꽉 막히다. 판무식의 까막눈이다.]
- 103) 눈 큰 황소 발 큰 도둑놈(속담) [눈이 크거나 발이 큰 사람을 놀리는 말]
- 나. '눈'이 복합어로 쓰인 예
- 104) 눈가림
- 105) 눈감다. [(눈시울을 마주 붙이다), 죽다. 보고도 못 본 체하다.]
- 106) 눈감아 주다.
- 107) 눈거칠다. [하는 짓이 보기 쉽다/온당치 못하다.]
- 108) 눈곱(자기)만하다.
- 109) 눈구석에 쌍가래톳 선다.(속담) [너무 분해 눈에 독기가 서린다.]

- 110) 눈기이다. [남의 눈을 속이다.]
- 111) 눈길을 끌다. [관심이 가게 하다.]
- 112) 눈길을 모으다.
- 113) 눈(꼴)이 사납다.
- 114) 눈(꼴)(이) 시다.
- 115) 눈꼴이 틀리다. [불쾌감을 느끼도록 보기가 쉽다.]
- 116) 눈높다.
- 117) 눈독(을) 들이다.
- 118) 눈딱부리
- 119) 눈딱지 [보기애 혐상궂고 흉한 눈 또는 눈매]
- 120) 눈뜨다. [(눈을 열다), (잠을 깨다), 장님이 시력을 얻다. 참뜻을 깨닫다.
문학 따위를 알게 되다. (예) 신학문에 눈뜨다.]
- 121) 눈뜬 장님 [청맹파니, 문맹자]
- 122) 눈맞다.
- 123) 눈맞추다.
- 124) 눈먼 돈 [임자 없는 돈, 우연히 생긴 공돈]
- 125) 눈멀다.
- 126) 눈 먼 자식이 효자노릇 한다. (속담) [평소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
- 127) 눈먼 탓이나 하지 개천은 나무래 무엇하나. (속담) [자기 부족함을 탓하지 남을 원망치 마라.]
- 128) 눈물(을) 거두다.
- 129) 눈물을 삼키다. [슬픔이나 억울함을 참다.]
- 130) 눈물을 머금다.
- 131) 눈물(을) 짜다. [공연히 눈물을 흘리며 울다. 억지로 울다.]
- 132) 눈물을 짓다.
- 133) 눈물이 골짜난다. [억울하여 눈물이 많이 나다.]
- 134) 눈물(이) 둘다.
- 135) 눈물(이) 어리다/지다.
- 136) 눈물(이) 없다. [동정이나 감동하는 일이 없다.]
- 137) 눈물이 앞을 가리다. [눈물이 자꾸 흐르다.]
- 138) 눈물이 해프다.
- 139) 눈바래기 [눈으로만 하는 배웅]

- 140) 눈밝다. [시력이 좋다.]
- 141) 눈(방울)을 굴리다.
- 142) 눈부시다. [빛이 세어 보기 어렵다. 황홀하다. 업적이 훌륭하다.]
- 143) 눈부처 [눈동자에 비쳐 나타난 사람의 형상]
- 144) 눈붙이다. [잠시 잠자다.]
- 145) 눈비음 [남의 눈에 잘 보이려 곁으로만 꾸밈]
- 146) 눈뼈다. [잘못 알아 볼 때 빙정거리는 말]
- 147) 눈살을 찌푸리다. [양미간을 찡그려 못마땅해 하다.]
- 148) 눈설다.
- 149) 눈썽에 불붙는다. [걱정거리가 갑자기 생겼다.]
- 150)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 151) 눈씨 [쏘아보는 눈빛. (예) 매서운 눈씨에 우선 기가 꺽였다.]
- 152) 눈(알)이 곤두서다.
- 153) 눈(알)을 곤두세우다.
- 153) 눈앞이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 154) 눈어둡다. [(시력이 약하다), 어떤 상황의 속내를 잘 모르는 처지다.]
- 155) 눈어리다. [시력이 흐리다.]
- 156) 눈엣가시 [몹시 미워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
- 157) 눈여겨보다.
- 158) 눈요기
- 159) 눈웃음(을) (짓다/치다)
- 160) 눈자위가 껴지다. [죽다.]
- 161) 눈찌를 막대「아무리 약한 자도 자기를 해치는 자를 막을 수단을 가졌다. 남의 급소를 찔러 해치려는 고약한 마음.」
- 162) 눈초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구석, 바라보는 눈길]
- 163) 눈총(을) 받다/맞다. [남의 미움을 받다.]
- 164) 눈총(을) 쏘다/주다.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에서 쏘아 보다.]
- 165) 눈치가 다르다. [태도나 행동이 평상시와 달리 이상스럽다.]
- 166) 눈치가 보이다.
- 167)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갈/새우젓/조개젓을 얹어 먹는다. (속담)
- 168) 눈치가 (알)안는 암탉 잡아 먹겠다. 「아둔하고 분별없다.」
- 169) 눈치(가) 있다. [남의 마음이나 깜새를 알아채는 재주가 있다.]
- 170) 눈치가 있으면 떡이나 얹어 먹지.

- 171) 눈치는 刑事다.
- 172) 눈치(를) 살피다/보다.
- 173) 눈치놀음 [눈치를 보며 잘 맞추어 행동하는 일]
- 174) 눈치 빠르기는 도갓집 강아지(속담) [몹시 눈치가 빠르다.]
- 175) 눈치(를) 채다/차리다.
- 176) 눈치 코치 다 안다.(속담)
- 177) 눈치 코치도 모른다.(속담)
- 178) 눈칫밥(을) (먹다)
- 179) 눈코 뜰 새 없다.
- 180) 눈코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
- 181) 눈표(가) 나다. [눈에 잘 띠다.]
- 182) 눈허리(가) 시다/시어 못 보겠다. [보기에도 몹시 아니꼽다.]
다. ‘눈’ 앞에 수식 부분이 있는 예
- 183) -에 까막눈이다. [어떤 부문에 무식한 사람]
- 184) 남의 눈(길)이 무섭다.
- 185) -의 눈에 들다.
- 186) -을 보는 눈이 있다//없다 [안목이 있다//없다.]
- 187) -을 이상한 눈으로 보다.
- 188) 거적눈 [윗눈시울이 축 처져 들어진 눈]
- 189) 계눈 감추듯 한다. <이 경우는 사람의 신체는 아니다.>
- 190) 군눈(을) 뜨다. [外道를 알게 되다.]
- 191) 군눈(을) 팔다.
- 192) 길눈이 밝다//어둡다.
- 193) 맑 똥 같은 눈물
- 194) 도끼눈을 뜨다.
- 195) 뜯눈으로 밤을 새다.
- 196) 먼눈(을) 팔다.
- 197) 밤눈이 어둡다.
- 198) 속눈(을) 뜨다. [눈을 감은 듯 만 듯 가늘게 뜨다.]
- 199)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 <‘눈으로’는 ‘표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굳은 형태.>
- 200) 실눈(을) 뜨다.
- 201) 제 눈에 안경이다.
- 202) 첫눈에 반하다/들다.

203) 한눈에 가득히 (보이다/차다)

204) 한눈에 알아 보다.

205) 한눈(을) 팔다.

이상에 열거한 예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겠으나 꽤 포괄적으로 '눈'에 관한 廣義의 관용표현을 다 망라한 것이다. 구절적 숙어 내지 문장 차원의 숙어표현으로서 약간의 속담까지도 포함시켰고 반대로 '눈칫밥' 같은 복합어도 여기에 넣어 보았다. 무려 205개까지 모였으나 더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복합어(합성어건 파생어건)를 더 넓게 넣으면 그 수효는 꽤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한 직설의미로서의 '눈을 감다//뜨다' 같은 자유표현은 배제하였다. 이와 외형상 똑같게 보이는 '눈을 감다'가 '죽다, 못 본 체하다'의 뜻으로, 또 '눈을 뜨다'도 ('-에'라는 대상이 선행하여) '어떤 분야에 관심이나 안목이 생기다'라는 관용의미로 쓰인 경우만을 여기에 목록화했다. 같은 이유로 '눈이 맑다'는 배제해도 '눈이 밝다'는 포함시킨다.

그리고 위에서 집계상 문제가 있는 예들은 '눈(을) 감다, 눈(이) 높다, 눈(을) 뜨다, 눈(이) 맞다, 눈(을) 맞추다, 눈(이) 멀다, 눈(을) 붙이다, 눈(이) 빼다, 눈(에) 설다' 등이다. 이들은 단독으로 쓰인 (13) 가.와 복합어로 쓰인 (13) 나.의 예에 두 번 열거되어 집계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도 조사를 넣거나 빼고 써도 다 좋은 예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가령 '눈(이) 꺼지다, 눈(을) 속이다, 눈(을) 주다, 눈(이) 뒤집히다' 등은 '눈꺼지다, 눈속이다, 눈주다, 눈뒤집히다' 등의 어형이 (13) 나.에 포함되지 않아 단순히 조사가 쓰인 가쪽으로만 집계된 것이다. 이런 불균형된 등재 조치는 현용 사전에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것으로 이런 사전들에서 자료를 모은 위의 목록에서도 이런 흔적이 얼마간 끼어들어간 셈이다. 만약 이것들까지 이중집계를 한다면 쉽사리 200여 개 항목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안경화(1986: 57)에서 예측한 바, 명사는 "그대로 둔 체 동사 부분이 바뀜으로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동사 부분이 명사 부분보다 관용의미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다."는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위의 '눈'의 경우를 보면 이 내용은 옳게도 보인다. '눈'에 뒤따라오는 여러 형태의 서술부가 현란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모든 '명사 + 동사' 관계에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의 '눈'이나 '입, 손, 배, 목, 간, 귀, 코' 등등의 신체 관계 명사들에나 다양한 서술어가 뒤따르는 관용표현이 발달해 있지 일반적으로 모든 명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동사가 뒤따르지 않는 명사부분에만 독자적 관용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예들도 많아서 위의 복합어 경우인 (13) 나.에서 '눈딱부리, 눈딱지, 눈부처, 눈씨, 눈요기, 눈초리, 눈칫밥' 등은 그런 범주로 포용해 본 것들이다. 물론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혹자는 위 예들은 관용표현이 아닌 단순한 복합어라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일면 이

문제는 관용표현의 정의에 대한 국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사전 등재방식의 문제까지로 번지는 것이다. 이상억(1993)에서 이런 국면을 약간 논하였기로 여기 옮겨 보겠다.

관용어 혹은 관용표현을 사전에 등재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등재항이 하나의 어휘소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미역국을 먹다”는 ‘미역국’과 ‘먹다’라는 별개의 어휘소의 적설적 의미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실제로 국을 먹는 경우)이 아니라 ‘낙방하다’와 지시의미가 동일할 때에 라야만 “미역국을 먹다”가 하나의 굳어진 관용표현으로 사전의 등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역국(을) 먹다”를 드물게 독립된 표제항으로 사전에 올리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흔히 ‘미역’ 아래의 ‘미역국’이란 표제항 내부에 관련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미역국’의 뜻풀이 자체에 ‘낙방, 해고, 거절, 탈락’ 등의 뜻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사전이 거의 전부이지만, 실제는 ‘먹다’를 붙여 쓰지 않고도 “너는 미역국이다”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미역국’은 ‘미역’과 ‘국’이 합성되어 전혀 제3의 뜻을 나타내는 응합합성어가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바가지(를) 쓰다”와 “바가지(를) 긁다”에서 “바가지”가 각각 ‘비싼 대가, 손해, 책임’과 ‘힐난, 불평, (아내의) 잔소리’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바가지 싸움”이란 말도 ‘바가지’의 다의어적 의미를 쓰고 있는 애다. 다만 ‘바가지’는 ‘박’에 ‘아지’란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이므로 앞서부터 말해 온 응합합성어는 될 수 없다.

합성이건 파생어건 복합어라는 상위 개념에 넣고 볼 때, 구·절 등과 구별하기 어려운 예들이 사전에 어떻게 등재되어야 할까를 살펴 본 것이 위 글의 내용이다. 두 형태가 길이는 달라도 관용의미를 공동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연관이 된다. ‘미역국’과 ‘바가지’가 명사 단독으로 관용의미를 갖는다면, ‘눈칫밥’과 ‘눈초리’도 마찬가지다. ‘국’을 먹건 ‘밥’을 먹건 또 ‘-아지’를 붙이건 ‘-초리’(제비/회 + 초리)란 접미사를 붙이건 마찬가지다. 결국 ‘눈칫밥(을) 먹다, 눈초리(가) 사납다/매섭다’ 등이 풍기는 뜻을 명사 자체에서도 다음과 같이 느낄 수 있다.

(14) 가. 치가집에 얹혀 지내니 항상 눈칫밥이다.

나.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장모의 (날카로운) 눈초리다.

(14)에서 볼 수 있고, ‘못생긴 너는 미역국이다’ 또는 ‘이 식당은 바가지다’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 + 이다’로서 형식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명사 + 이다’가 관용의미를 뚜렷이 지닌 명사만의 용법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돈 없이 쇼핑하는 것은 눈요기다’ 정도는 괜찮아도 ‘첫눈에 기를 켜는 것이 (매서운) 눈씨다’는 약간 딜 익숙하다. 아마 ‘눈씨’라는 말을 자주 안 쓰는 것이라 그런지도 모른다. 하여튼 익숙함의 정도차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 두더라도 기본적으로 ‘명사 + 이다’ 형식이 쓰인다면 그 명사 단독으로 관용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좋겠다. 즉 서술어의 후행이 없이도 명사 자체가 관용적 해석을 유발시킨 것이다. (14) 나.에서 ‘날카로운’을 빼도 별 문제가 없고 ‘매서운’도 빠진 채 ‘눈씨’만으로 ‘쏘아보는 눈빛’이 느껴지면 명사만에도

관용의미가 있다고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 이 정도의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란 점에는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경화(1986)의 “동사 부분이 명사 부분보다 관용의미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다.”는 관찰은 피상적인 얘기고 명사류만도 다양한 관용의미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로 한다.

한 가지 덧붙여 둘 것은 ‘눈’ 앞에 수식부분(句전 복합어의 일부이건)이 있는 (13) 다.의 경우, 가령 ‘남의 눈이 무섭다’ 만 ‘남의’라는 수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13) 가.와 (13) 나.의 다른 예들 중에도 이 경우와 비슷한 수식 부분이 앞에 오는 예들이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견은 수용하겠다는 여유를 가지고 작성된 목록임을 밝혀 둔다.

B. ‘손’ :신체어2

신체어 중 두번째로 자주 쓰이는 ‘손’을 가진 관용표현을 보기로 하자.

(15) 가. ‘손’이 단독으로 쓰인 예.

- 1) 손 안 대고 코풀기. (속담)
- 2) 손에 걸리다.
- 3) 손에 넘어가다.
- 4) 손에 넣다.
- 5) 손에 놀아나다.
- 6) 손에 달리다. [일손이 달리다]
- 7) 손에 들다.
- 8) 손에 땀을 쥐다.
- 9) 손에 불은 밥풀 아니 먹을까?(속담)
- 10) 손에 손을 잡다.
- 11) 손에 떨어지다. [어떤 세력 밑에 들어가다]
- 12) 손(애) 익다.
- 13) 손에 잡히다.
- 14) 손에 잡힐 듯하다.
- 15) 손에 쥐다.
- 16) 손으로 살 막듯. (속담)
- 17) 손을 거치다. [어떤 사람을 경유하다. 손질을 입다.]
- 18) 손(을) 끊다.
- 19) 손(을) 나누다. [헤어지다. 한 가지 일을 여럿이 나누어 하다.]
- 20) 손(을) 내밀다. [무엇을 달라고 하다. 간섭하다.]

- 21) 손(을) 넘기다. [물건을 셀 때 잘못 계산하다. 시기를 놓치다.]
- 22) 손(을) 때다.
- 23) 손(을) 맷다.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다.]
- 24) 손(을) 멈추다.
- 25) 손(을) 벌리다. [(돈을) 귀찮게 요구하다.]
- 26) 손(을) 붙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다. 노력을 들여 일하다.]
- 27) 손(을) 비비다.
- 28) 손(을) 빌리다.
- 29) 손(을) 빼다.
- 30) 손(을) 뺏치다.
- 31) 손(을) 썻다.
- 32) 손(을) 젓다. [거절하다]
- 33) 손(을) 주다. [덩굴이 타고 오르도록 막대기를 대어 주다.]
- 34) 손(을) 타다. [물건이 자주 없어지다.]
- 35) 손(을) 털다.
- 36) 손(이) 가다. [손이 미친다. 손을 대어 매만진다.]
- 37) 손(이) 거칠다. [손벼룩이 나쁘다. 일솜씨가 세밀하지 못하다.]
- 38) 손(이) 곱다. [손이 차서 움직이지 않는다.]
- 39) 손(이) 낫다..
- 40) 손(이) 달리다/모자라다//많다.
- 41) 손(이) 뜨다.
- 42) 손(이) 맑다. [재수가 없어 생기는 것이 없다. 인색하여 다람다.]
- 43) 손(이) 맞다.
- 44) 손(이) 맵다. [슬쩍 때려도 아프다. 일이 야무지다. 가축을 기르는 데에 번번이 실패 한다.]
- 45) 손(이) 비다. [할 일이 없다. 수중에 돈이 없다.]
- 46) 손(이) 빠르다. [민첩하다. 물건이 잘 팔려 나가다.]
- 47) 손(이) 서투르다.
- 48) 손(이) 설다.
- 49) 손(이) 싸다. [손놀림이 빠르다.]
- 50) 손(이) 여물다. [손으로 하는 일을 빈틈없이 잘하다.]
- 51) 손(이) 작다. [물건의 쓴씀이가 작다. 수단이 적다.]
- 52) 손(이) 잡기다. [일에 매여 벗어날 수 없게 되다.]

- 53) 손(이) 채다. [동작이 빠르다.]
- 54) 손(이) 크다. [啐啐이가 후하고 크다. 수단이 좋고 많다.]
- 55) 손 젠 승(僧)의 비질하듯.
- 나. '손'이 복합어로 쓰인 예.
- 56) 손가락에 불을 지르고 하늘에 오른다. (속담) [도저히 할 수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 57) 손가락으로 하늘 찌르기. (속담)
- 58) 손가락질(을) 밟다.
- 59) 손가락총질 [북한어: 남을 비난하여 손가락을 내뻗쳐 가리킴.]
- 60) 손그릇 [거쳐하는 자리에 가까이 두고 늘 쓰는 작은 세간.]
- 61) 손금(을) 보다. [손금으로 점치다. 화투 패를 손바닥에 들고 보는 노름을 하다.]
- 62) 손금 보듯 하다. [낱낱이 다 알다.]
- 63) 손기적(하다). [북한어: 노크(knock, 하다)]
- 64) 손길 [손바닥을 펴서 내민 손. (예) -이 닿다. 위해 주려는 마음으로 내민 손. (예) 사랑의-.]
- 65) 손길(을) 잡다.
- 66) 손꼽다. [수를 세다. 많은 사람 중 뛰어나다. (예) 당대의 손꼽는 시인.]
- 67) 손끝에 물도 튀기(지 않)다. [아무 일도 하지 않다.]
- 68) 손(끝)(이)/(매)(가) 맵다. [슬쩍 때려도 아프다. 일이 야무지다.]
- 69) 손(끝)(을) 맷다.
- 70) 손끝(에) 물이 오르다. [구차하던 살림이 점차 부유해지다.]
- 71) 손(끝)(이) 여물다.
- 72) 손놓다. [하던 일을 그만 두다.]
- 73) 손닿다. [(손이 미치다.) 능력이 미치다.]
- 74) 손대다. [(손으로 만지다.) 일을 시작하다. 어떤 일에 관계하다. 남을 때리다. 고치다. 남의 재물을 착복하다.]
- 75) 손대중.
- 76) 손더듬이(하다.)
- 77) 손독(을) 올리다.
- 78) 손독(이) 오르다.
- 79) 손들다.
- 80) 손때(가) 맵다.
- 81) 손때(가) 먹다/묻다.

- 82) 손때(를) 먹이다. [꽝이 나게 한다. 길들여 쓰다. 양육하다.]
- 83) 손떼다. [남과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 두다. 하던 일을 마쳐 끝을 맺다.]
- 84) 손뜨겁다/부끄럽다. [손을 내밀었다가 못 받아/주어 무안하다.]
- 85) 손복을 잡고 말리다. [기어코 못 하게 말리다.]
- 86) 손바꿈 [능한 솜씨를 서로 바꾸어 일하는 것. 그 날 일에 서로 사람을 바꾸어 일하는 것, 換手.]
- 87) 손바닥(을) 뒤집듯 하다.
- 88) 손바람. [일을 잘 처리 나가는 솜씨나 기세.]
- 89) 손발(을) 걷다. [죽은 사람의 몸이 굳어지기 전에 수족을 거두어 놓다.]
- 90) 손발(을) 치다. [자기가 발견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외치다.]
- 91) 손발(이) 맞다.
- 92) 손발이 뚫도록 벌다.
- 93) 손발이 되다.
- 94) 손벼룩(이) 사납다.
- 95) 손보기 [일이나 물건 등이 결점이 없도록 보살피는 일. 손질.]
- 96) 손뼉(을) 치다. [(두 손바닥을 마주 쳐 소리를 내다.) 찬성하다.]
- 97) 손살사래(를) 치다. [조용하라거나 부인할 때 손을 펴 휘젓다.]
- 98) 손살/살피 [손가락 사이]
- 99) 손속 [노름에서 패가 손에 잘 맞아 나오는 운수, 手德]
- 100) 손심부름(하다.) [신변 주위의 잔 심부름하다.]
- 101) 손쓰다.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다.]
- 102) 손씻이 [수고를 갚는 뜻의 예로 적은 물건을 주는 일]
- 103) 손아귀 안에 넣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다.]
- 104) 손어림 짐작(하다.)
- 105) 손잡다. [(손을 마주 잡다.) 힘을 합쳐 일하다. 다시 친숙해지다.]
- 106) 손질 [=손돋보기. 남을 함부로 때림=손찌검. 바둑에서 자기 집에 필요한 돌을 두는 일.]
- 107) 손체양(북한어) [해를 가리려고 이마에 손을 얹는 일.]
- 108) 손치다. [물건을 매만져 바로 잡다. 물건이 없어지거나 어지럽게 되다.]
- 109) 손톱도 안 들어가다.
- 110) 손톱만큼도(뒤에 否定적인 말을 씀)
- 111)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스는 줄은 모른다. (속담) [작은 이해관계는 밟아도 큰 손해에는 어둡다.]

- 112) 손톱 발톱이 젖혀지도록 벌어 먹인다. [있는 힘을 다하다.]
- 113) 손톱 여물을 씬다. [큰 걱정을 품고 혼자 애를 쓰다. 음식을 나눠 줄때 아껴 조금씩 주다.]
- 114) 손톱은 슬풀 때마다 돋고 발톱은 기쁠 때마다 돋는다. (속담) [발톱보다는 손톱이 더 잘 자란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다.]
- 115) 손톱을 튕기다. [일은 하지 않고 놀고만 지내다.]
- 116) 손톱 저기다. [손톱으로 찍어서 자국을 내다.]
- 117)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 118) 손티 [곱게 얹은 얼굴의 마Matt자국.]
다. '손' 앞에 수식부분이 있는 예.
- 119) 내민 손이 무안하다.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가 못 받거나, 주는 데도 안 받아 무안하다.]
- 120) 든 손에 다 끝내다. [일을 시작한 손/김에 얼른 다 끝내다.]
- 121) 뒷손(을) 내밀다/벌리다.
- 122) 뒷손(을) 보다. [뒷수쇄/치다끼리하는 잔손질을 하다.]
- 123) 뒷손(을) 쓰다. [남 몰래 필요한 조처를 취하다.]
- 124) 뒷손(이) 가다. [뒷손질하다.]
- 125) 뒷손(이) 없다.
- 126) 뒷손가락질(하다.)
- 127) 맨손 [아무것도 끼지 않은 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손, 手. (예) 맨손으로 모은 재산.]
- 128) 부손 [화로에 꽂아두고 쓰는 작은 부삽. 불 + 손]
- 129) 비손(하다.) [신에게 손을 비비며 소원을 빌다.]
- 130) 빙손 털다. [헛일이 되어 소득이없다. 가진 것을 몽땅 털다.]
- 131) 살손 [연장 없이 바로 대서 만지는 손. 일을 정성껏 하는 손.]
- 132) 살손(을) 불이다. [일을 정성껏 다잡아 하다.]
- 133) 선손(을) 걸다/쓰다. [先手를 치/쓰다.]
- 134) 선손질 [먼저 손찌검하는 것]
- 135) 선손질 후방망이 [남을 해롭게 하면 다음에 자기가 큰 해를 입는다.]
- 136) 손꼽손 [좀스럽고 얄망궂은 손장난]
- 137) (어머니 손은) 약손
- 138) 엉녀릿손 [환심을 사려고 어벌쩡하게 서두르는 솜씨.]
- 139) 원손좌질 [식사 때 수저를 원손으로 쥐고 놀리는 것.]

- 140) 일손 [(일하는 손). 일하는 솜씨. 일하는 사람.]
- 141) 일손(을) 놓다. [하던 일을 그만 두다. 잠시 쉬다.]
- 142) 일손(을) 떼다./쉬다.
- 143) 일손이 잡히다.
- 144) 잡순(질)(하다.)
- 145) 잡을손(이) 뜨다. [일을 다잡아 해내는 솜씨가 몹시 굽뜨다.]
- 146) 잡힐손 [쓸모 있는 재간]
- 147) 조막손이 달걀 놓치듯
- 148) 조막손이 달걀 도둑질하다.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이루었다.]
- 149) 조막손이 달걀 떨어뜨린 셈 [낭패를 보고 어쩔 줄 모른다.]
- 150) 조막손이 달걀 만지듯 [주무르기만 하고 꽉 잡지 못하다.]

원래 ‘관용 표현의 의미론’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눈’이나 ‘손’에 대한 의미 범주에 대해 자세한 하위 분류라든가 다른 의미론적 유형에 입각한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15)가, 예들을 볼 때 우선 통사론적 형태부터 뚜렷이 구별되어 있기에 여기에 잠시 ‘-에’, ‘-을’, ‘-이’ 가운데 어느 격조사로 받느냐에 따라 추세를 짐계해 보겠다. 뒤에 기술할 ‘입’까지 포함해 다루어 보겠다.

	눈	손	입
-에	28	14	15
-을	21	19	13
-이	24	19	30

이 짐계에서 한 가지 특색은 ‘입 + 이’ 항목이 다른 것들보다 비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그 많아진 이유는 알 수 없고 아마 우연한 분포가 아닌가 싶다.

C. ‘입’ : 신체어 3

그러면 신체어를 동원한 관용표현 중 세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입’에 관한 다음 예들을 보자.

(16) 가. ‘입’이 단독으로 쓰인 예

- 1) 입 밖에 내다.
- 2) 입 안의 소리.
- 3) 입 (안)의 혀 [=입에 혀같다.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다.]
- 4) 입 하나는 그만이다.
- 5) 입도 뻥긋 안 하다.

- 6) 입만 까다/가지고 한 뜯 보다.
- 7) 입만 살다/성하다. [실천 없이 말만 잘하다. 치지가 음식을 가려 먹을 형편이 못 되어도 음식을 끊시 가리다.]
- 8) 입만 아프다.
- 9) 입에 거미줄 치다(속담).
- 10)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들다.
- 11) 입에 꿀을 바른 말.
- 12) 입에 맞는 뼈. (속담)
- 13) 입에 맞다.
- 14) 입에 문 혀도 깨물다. (속담) [사람인 이상 실수가 있다.]
- 15) 입에 발린/붙은 소리.
- 16)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속담)
- 17) 입에 오르내리다.
- 18) 입에 오르다. [이야기 대상이 되다. (-을) 말하기에 벼룩이 되다.]
- 19) 입에 올리다.
- 20) 입에 익다.
- 21) 입에 침이 마르도록/없이 (청찬/자랑하다).
- 22) 입에 풀칠(을) (겨우) 하다. (속담)
- 23) 입에 허 같다/허처럼 굴다.
- 24) (입에서) 신물이 나다. (속담)
- 25) (입에서) 젖내(가) 나다. (속담) [나이가 어리다. 연등이 어리다.]
- 26) 입은 두었다 무엇하나?
- 27)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하랬다. (속담)
- 28) 입은 비뚤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랬다. (속담)
- 29) 입(을) 놀리다. [(말하다). 함부로 지껄이다.]
- 30) 입(을) 다물다. [(말을 하지 않다). 할 말을 그만 두다.]
- 31) 입을 딱 벌리다. [기가 막히다.]
- 32) 입(을) 폐다/열다.
- 33) 입(을) 막다. [말이 나가지 않게 하다.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만족하게 하여 주다.]
- 34) 입(을) 맞추다. [(입술을 대다). 서로 말의 내용을 같게 짜다.]
- 35) 입(을) 모으다. [여럿이 같은 의견으로 말하다.]
- 36) 입(을) 벌리다. [달라고 욕심내다. 기가 막히다.]

- 37) 입(을) 봉/합봉하다.
- 38) 입(을) 씻기다. [불리한 말을 못하도록 매수하다.] → 입씻김
- 39) 입(을) 셋다. [입을 닦다. 혼자 가로채고 시치미를 떼다.] → 입씻이
- 40) 입(을) 열자나 빼고 있다.
- 41) 입(을) 틀어막다.
- 42) 입(이) 가볍다/싸다.
- 43) 입(이) 거칠다/걸다/질다. [말솜씨가 힘하고 푸지다.]
- 44) 입이 궁금하다. [먹고 싶은 생각이 난다.]
- 45) 입이 근질근질하다/가렵다.
- 46) 입(이) 달다. [음식 맛이 있다.]
- 47) 입(이) 끓게/끓도록 (일렀다).
- 48) 입(이) 더럽다.
- 49) 입(이) 되다. [음식에 까다롭다.]
- 50) 입이 떨어지다.
- 51) 입(이) 뜨다.
- 52) 입(이) 많다. [식구가 많다.]
- 53) 입(이) 무겁다.
- 54) 입(이) 바르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듣는 이가 꺼릴 만큼 날카롭게 말을 잘 하다. (예) 입바른 소리.]
- 55) 입(이) 밟다/밟다. [음식을 가려 먹거나 적게 먹는다.]
- 56) 입(이) 벌어지다.
- 57) 입이 보배.
- 58) 입(이) 빠르다. [입이 가벼워 마구 지껄이다. = 입이 싸다. 남의 약점을 잘 찔러 말하다. = 입이 바르다.]
- 59) 입(이) 사복(司僕) 개천 같다. [말과 가마를 관장하던 사복시의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개천같이 입이 걸다.]
- 60) 입이 서울. [먹는 것이 제일.]
- 61) 입(이) 싸다.
- 62) 입(이) 쓰다.
- 63)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 64) 입(이) 여무지다/여몰다. [말이 확실하고 실속이 있다.]
- 65) 입(이) 열(둘)이라도/꽝주리만 해도 말 못 한다/할 말이 없다.
- 66) 입(이) 원수/구복(口服)이 원수/입이 포도청. [목구멍이 포도청.]

- 67) 입(이) 재다.
- 68) 입이 천근 같다.
- 69) 입(이) 푸짐하다/푸지다.
- 70) 입이 함박만하다. [아주 만족해 하다.]
- 71) 입이 험하다.
- 나. '입'이 복합어로 쓰인 예
- 72) 입가심 [입 안이 텁텁할 때 개운하게 하는 것. 입맛나게 미리 간단히 먹는 것.]
- 73) 입(길)에 오르내리다. [입길 = 남을 흥보는 입의 놀림.]
- 74) 입김(을) 넣다.
- 75) 입김(이) 세다.
- 76) 입김(이) 어리다.
- 77) 입내(를) 내다. [소리와 말로써 흥내내다.]
- 78) 입노릇 [끼니 외에 '음식 먹는 것'의 속칭.]
- 79) 입다심/입매 [음식을 조금 먹어 시장기를 면하는 것.]
- 80) 입다짐
- 81) 입다툼 [말다툼]
- 82) 입담 좋다. [입심을 부리는 말재주, 말솜씨가 좋다.]
- 83) 입덧(이) 나다.
- 84) 입되다. [맛있는 음식만 탐하는 베릇이 있다. 가리는 음식이 많은 성미다.]
- 85) 입막음 (하다).
- 86) 입맛대로 하다. [저 좋을대로 하다.]
- 87) 입맛(이) 돌다/당기다.
- 88) 입맛(이) 떨어지다. [(식욕이 떨어지다). 흥미가 없어지다.]
- 89) 입맛(이) 쓰다//달다.
- 90) 입맛(이) 짧다. [= 입되다.]
- 91) 입맛(을) 다시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다. 무엇을 갖거나 하고 싶어 욕심을내다. 뜻대로 안 되어 난처해 하다. (예)쓴 입맛을 다시다.]
- 92) 입맛(을) 불이다. [재미를 불이다.]
- 93) 입맛(을) 잃다. [구미나 흥미를 잃다.]
- 94) 입매 [(음식을 조금 먹어 시장기를 면함). 남의 눈가림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일. '입모양' 이란 뜻의 '입매' 와는 다름.]
- 95) 입맷상 [잔치 때 큰 상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대접하는 상.]

- 96) 입방아(를) (찡다).
- 97) 입버릇 [(입으로 말하는 버릇). 상투어. 음식을 먹는 버릇.]
- 98) 입벌이 (북한어)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의 벌이.]
- 99) 입속말(로 중얼거리다).
- 100) 입숟가락 [막잡이로 얇게 만든 숟가락.]
- 101)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 102) 입술을 깨물다. [분을 참거나 결심하다.]
- 103)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 104) 입심 ['입힘'에서 온 말로서 말을 줄기차게 하는 힘.]
- 105) 입심(을) 뽑다.
- 106) 입씨름 [성사시키려 애씀. = 말다툼.]
- 107) 입아귀(를) 새기다. [입아귀를 자꾸 놀리며 새김질하다.]
- 108) 입요기(하다).
- 109) 입정(을) 놀리다. [계속 군음식을 먹다. 입버릇 사납게 말하다.]
- 110) 입정(이) 사납다. [군음식을 탐내다. 말하는 입버릇이 나쁘다.]
- 111) 입줄/구설(口舌)(에 오르내리다).
- 112) 입찬 말/소리 [현재 처지만 희롭게 자랑하거나 장담하는 말.]
- 113) 입찬 말/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 (속담)
- 114) 입치다꺼리(나 하는 정도)
다. '입' 앞에 수식부분이 있는 예
- 115) 남의 입이 무섭다.
- 116)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다.
- 117) 군입(정) [군음식으로 입을 다심. 주전부리.]
- 118) 군입(을) 다시다. [군음식을 먹다. 아무 것도 먹지 않으면서 그냥 입을 다시다.]
- 119) 군입(정)질 (하다).
- 120) 마른입 [물을 마시지 않은 입. = 잔입]
- 121) 멘입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입/처지]
- 122) 멘입에 앞 교군(轍軍) 서라 한다. [어려운 중에 또 어려운 일이 겹친다.]
- 123) 메기입 [넓게 째진 입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는 말.]
- 124) 뭇입 [여러 사람의 나무라는 많은 말. 衆口.]
- 125) 잔입 [아침에 잠자고 나서 아직 아무 것도 안 먹은 입.]
- 126)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100여항의 많은 예들이 쉽게 찾아지는 데 이들은 주로 신기철, 신용철(1986)

의 ‘새우리 말 큰사전’을 참조한 것이다. 이 사전의 ‘입’ 항목 및 그와 관계되는 구절, 복합어의 나열에서 흥미로운 점은 ‘-에’가 쓰이는 항목은 ‘입’의 1차적 설명부분에 直列式으로 나열하였고, ‘-을’과 ‘-이’가 쓰일 수 있는 항목들은 그 뒤에 각 항목을 異列式으로 각 줄을 잡아 독립시켜 나열하였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차적 설명부분에는 꽤 많은 표현이 ‘속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차적 異列 항목 부분에서는 ‘-을’이 개체될 때는 ‘타동사’로 (단 ‘입(을) 봉하다’에는 웬일인지 ‘자동사’로도 표시하였다.) ‘-이’가 개체될 때는 대부분 ‘형용사’로 (단 ‘입(이) 여물다/여무지다’는 ‘자동사’로, ‘입(이) 닳게/도록’은 ‘부사’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에’와 ‘-을/-이’가 완연히 구분되어 처리된 배경에는 차격이 붙은 말보다 목적격이나 주격이 붙은 말이 앞에 올 때 더 독립적 구절로 인식되는 잠재 심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목적격, 주격은 차격보다 더 주요한 格標識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을 받은 듯하다.

입¹ ①입술에서 후두까지의 부분. 채내에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를 내는 기관임. ⑦두 입술 부분. *빼죽이 내민 아가의 ~이 더욱 귀엽다. ②‘사람’이나 ‘식구’를 비유하는 말. *우리 집엔 ~이 다섯이다. ~이 많아서 좀처럼 못 얻어 먹는다. ③‘말솜씨’를 비유하는 말. *그 자식은 ~만 가지고 한 뜲 보는 친구다. 그 사람 ~ 하나는 그만이지. ~이 푸짐하다. ④먹는 것. 〔낮은〕 주동아리^①. 입만 까다 말로만 그럴 듯하게 하고 실천은 아니 하다. 입만(입은) 살다(성하다) ①‘실천이 따르지 않으면서 말만은 그럴 듯하게 잘함’을 이르는 말. ②‘처지가, 음식을 가려 먹을 형편이 못 되면서도 음식을 봅시 가림’을 이르는 말. 입만 아프다. ‘어려 번 일러 주어도 말한보람이 없음’을 이르는 말. 입 밖에 내다 [비밀한 일이나 남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어 말하다. 입 안의 소리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입안에서 용얼웅얼하는 가느다란 말소리. 입 안의 혀 = 입에〔의〕 혀. 입에 거미줄 치다 〔오랫동안 끓는다는 뜻. 입에 맞는 떡〕 ‘자기의 마음에 끌 드는 사물’을 이르는 말. 입에 맞다 자기의 식성에 꼭 들어맞다. 입에 문 혀도 깨물다 〔사람인 이상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뜻. 입에 발린〔불은〕소리 마음에도 없는 것을 걸치레로 하는 말. 입에서 신물이 나다〕 = 신물이 나다. ⇒ 신물¹. 입에서 젖내(가) 나[난]다 〔①아직 나아가 어리다는 말. *입에서 적내가 나는 녀석이 제법 의뭉스럽군. ②언동이 몹시 어리다는 말. *입에서 젖내(가) 나는 짓을 하는군〔구상 유취(口尙乳臭), 젖내(가) 나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교훈은 듣기에 싫은 법이지만 자기 수양을 위하여는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 입에 오르내리다 자주 남의 이야기거리의 대상으로 되다. 입길에 오르내리다. 입에 오르다 ①이야깃거리의 대상으로 되다. ②〔무엇을〕 말하기에 버릇이 되어 굳어지다. 입에 익다 입에 버릇이 되어 배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없이〕 남을 아주 좋게 말하거나 또는 몹시 찬양해서 말함의 비유. 입에 풀칠(을)하다 〔겨우 목숨이나 부지할 정도로 끓지나 않고 산다는 뜻〔목구멍에 풀칠한다〕. 입에〔의〕 혀 같다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함을 이르는 말. 입 안의 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랬다(해라) 〔비록 이롭지 못한 조건 아래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말만은 언제나 정직하게 하라는 뜻〔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렸다〕.

입을 딱 벌리다 하도 엄청나서 기가 막혀 하거나 또는 매우 놀라와함을 이르는 말. 입이 근질근질하다(가렵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 입이 보배 **围** 입으로는 먹는 일이나 말하는 일 무엇이나 다 한다 하여 이르는 말. 입이 사복 개천 같다 **围** ⇒사복(司僕) 개천. 입이 열 둘이라도 말 못한다 **围** 변명할 여지가 도무지 없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 [입이 광주리만해도 말 못한다]. 입이 원수 = 구복이 원수. ⇒구복. 입이 천근 같다 '입이 씩 무거움'의 비유. 입이 포도청 **围** =목구멍이 포도청. ⇒ 목구멍. 입이 힘박 만 하다 '아주 만족해함'의 비유.

입(이) 가볍다 **围** (보변) 말수가 많고 신중하지 못하여 경솔하다.

입(이) 걸다 **围** (흐번) 말솜씨가 험하고 푸지다. 입(이) 질다.

입(을) 놀리다 **围** 말을 결술하게 자꾸 하다.

입(을) 다물다 **围** (흐번) ①말을 하지 아니하다. ②하던 말을 그만두다.

입(이) 달다 **围** (흐번) 구미가 당겨서 음식이 맛이 있다.

입(이) 많게 **围** = 입(이) 많도록.

입(이) 많도록 **围** 기회 있을 적마다 상대편이 잘 알아듣도록 여러차례 거듭해서 말함을 이르는 말. 입(이) 많게.

입(이) 더럽다 **围** (보번) 입이 걸어 말버릇이 고약하다.

입(이) 되:다 **围** 맛있는 음식만을 먹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음식에 까다롭다.

입(이) 떼:다 **围** = 입(을) 열다.

입(이) 뜨다 **围** (으번) 입이 무거워 말수가 적다.

입(을) 마다 **围** ①말이 밖으로 나지 않게 하다. ②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하여 주다.

입(을) 맞추다 **围** [두 사람이] 입술을 서로 대다. 애정이나 존경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것임.

입(을) 모으다 **围** (으번) [어떤 안전이나 일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같은 의견으로 말하다.

입(이) 무겁다 **围** (보번) 말수가 적고 들판하다.

입(이) 무섭다 **围** (보번) 이려쿵저리쿵 여러 말[소문]이 날까 보아 두렵고 꺼림칙하다.

입(이) 바르다 **围** (흐번)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듣는 이가 꺼려할 만큼 거침없이 날카롭게 말을 잘하다. ×입(이) 빠르다②.

입(이) 밟다 **围** = 입(이) 짚다.

입(이) 벌어지다 **围** 마음에 흡족해서 져절로 입을 다물다.

입(을) 봉하다(一封一) **围** (여번) ①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다. ②함부로 말을 꺼내어 떠들지 못하도록 만들다. 입(을) 함봉하다.

입(이) 빠르다 **围** (흐번) ①[입이 가벼워] 남에게서 들은 말이나 생각하는 바를 참을성 없이 되는대로 마구 지껄이다. 입(이) 재다. ②→입(이) 바르다.

입(이) 싸다 **围** 무게 없이 경망하게 입을 놀리는 버릇이 있다.

입(이) 쓰다 **围** (으번) ①구미가 당기지 아니하여 음식맛이 없다. ②맞갖지 아니하여 기분이 언짢다. *그 많은 재산을 향진했으니, 그도 입이 쓸 거야.

입(을) 씻기다 **围** 자기에게 불리한 다른 말을 내지 못하도록 매수하려고 남몰래 돈이나 물건을 쥐어 주다.

입-씻다 **围** ①입을 씻다. ②이문 같은 것을 혼자 쑥싹하거나 가로채고서 모르는 체 시치미

를 떼다. * 이문은 혼자 먹고 입setWidth="400" style="float:right; margin-right:10px;">셋어 버린다.

입(이) 여무지다 재 = 입(이) 여물다.

입(이) 여물다 재 (트변) 말이 확실하고 설속이 있다. 입(이) 여무지다.

입(을) 열:다 틔 (트변) 말을 꺼낸다. 입(을) 떼다.

입(이) 재다 휩 = 입(이) 빠르다^①.

입(이) 질다 휩 (트변) = 입(이) 걸다.

입(이) 짧다 [---짧따] 휩음식을 가려 먹거나 또는 적게 먹는 습관이 있다. 입(이) 밟다.

입(을) 틀어막다 틔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대책을 세우다.

입(을) 함봉하다(—緘封—) 틔 (여변) = 입(을) 봉하다.

입(이) 험하다 휩 (여변) 말을 험하게(걸게) 마구 하는 버릇이 있다.

입² 国际在线 출입구(出入口). 문호(門戶). * 峡人이베(峽口)《杜解》. 입과 窓과 窓(戶牖之隙)《楞嚴》2:25). 입호(戶)《訓蒙中5》. ⇒입²^②.

입-가 𦥑의 가장자리. 입의 언저리.

입(이) 가볍다 휩 (남변) ⇒입¹.

입-가심 𦥑^①[입 안이 텁텁하거나 쓰거나, 또는 느끼할 때] 입 안을 개운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러한 물건. ×입씻이^②. ②입만ㅅ 나게 하려고 음식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먹는 일, 또는 그러한 물건. ⇒입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먹는 일, 또는 거리한 물건. ⇒입씻이. —하다 재 (여변)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입’이, ‘눈’의 경우처럼 ‘視覺’이란 한 뜻을 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言’과 ‘食’의 두 뜻을 나타내고 또 ‘口’라는 물체를 나타내는 경우까지 3중적 의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양상을 몇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고, 대략 접계해 본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3등분이 되는 듯하다.

(17) 가. ‘眞’의 뜻으로 쓰인 경우

1) 입 밖에 내다.

2) 입만 까다

3) 입을 놀리다, 등.

나. ‘食, 味’의 뜻으로 쓰인 경우

1) 입에 맞는 떡

2) 입이 궁금하다

3) 입맛이 돌다, 등.

다. ‘口’의 뜻으로 쓰인 경우

D. ‘개’ : 기타

위에서 보인 명사류의 세 단어는 다 신체어에서 1~3위를 점했다. 그 뒤를 따르는 단어는 ‘개’로서 처음으로 신체어가 아닌 일반 의미를 지닌 항목이 나온 셈이다. 여기에 그 내용을 일일이 보일 지면이 없어 後稿로 미루려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개’ 다음에는

어떤 단어들이 집계될까만 예측해 보려 한다. 5위 이하는 '물, 똥, 말(言), 귀, 사람, 밥, 발, 코' 등으로 이어질 것이 예측되며 이 중에는 여전히 신체어가 많이 끼어 있다. 후에 그 용례는 별도로 모아 발표하겠다.

2) 동사류의 의미유형

관용표현의 의미유형을 동사류 쪽에 중심을 옮겨 살펴 보는 일은 명사류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다양성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우선 그 상위 후보어들을 예측해 보기 위한 표본으로 한 무리의 관용표현을 검토해 보니, '-없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없다'가 가장 많이 쓰였다. 그 밑 순위에는 '보다, 먹다, 나다, 쓰다' 등이 있고, '하다'는 한자어 어간 뒤에 '-하다' 식으로 불리는 형태는 꽤 많지만 '하다' 단독으로만 쓰이는 경우는 '쓰다'와 비슷한 수였다.

E. '없다/없이'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 내지 존재사라 해야 할 '없다'인데 여기서는 광범위한 의미의 記述動詞로서 동사류라는 총칭 하에서 다루기로 한다. 순서에 관계없이 그 용례를 살펴 보되, '없이'를 뒤에 몰아 보겠다.

(18) 가. '없다'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

- 1)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 2) 강아지/개미 새끼 한마리 볼 수 없다.
- 3) (얼굴을) 눈 뜨고 볼 수 없다.
- 4) (부끄럽)기 짹이 없다.
- 5) (그)는/를 코빼기도 볼 수 없다.
- 6) (먹)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다.
- 7) 간 곳이 없다.
- 8) 걸잡을 수가 없다.
- 9) 구김살이 없다.
- 10) 국물도 없다.
- 11) 군소리 없다.
- 12) 나무랄 데가 없다.
- 13) 너 나 할 것 없이/다.
- 14) 뒤가 없다.
- 15) 둘도 없는 기회/친구.
- 16) 밑도 끝도 없이/다.
- 17) 별 볼 일 없다.

- 18) 보이는 것이 없다.
- 19) 세상에 없는 효과.
- 20) 짹수/아지가 없다.
- 21) 어림도 없다.
- 22) 어이가 없다.
- 23) 어처구니가 없다.
- 24) 종잡을 수가 없다.
- 25) 피도 눈물도 없다.

나. '없이'가 명사 바로 뒤에 붙는 경우

- 26) 그지없이 [끌이 없이]
- 27) 더 할 나위 없이
- 28) 남김없이
- 29) 다시없이
- 30) 덧없이
- 31) 두서없이
- 32) 맥없이
- 33) 빠짐없이
- 34) 부질없이
- 35) 사정없이
- 36) 세상없이/어도
- 37) 속없이
- 38) 속절없이
- 39) 수(도)없이
- 40) 숨김없이
- 41) 철새없이
- 42) 시름없이
- 43) 실없이
- 44) 어김없이
- 45) 열없이
- 46) 정신없이
- 47) 주책없이
- 48) 철없이
- 49) 틀림없이

- 50) 하릴없이
- 51) 하염없이
- 52) 할 수 없이
- 53) 허물없이

다. '없다'로 시작되는 속담들

- 54) 없는 꼬리 흔들까. [뜻이 있더라도 물질적 조건이 없으면 못한다.]
- 55) 없는 놈이 비단이 한때라. [비단을 가지고도 한 끼밖에 못 잇는다.]
- 56) 없는 놈이 있는 체, 못난 놈이 잘난 체.
- 57) 없는 놈이 자 두치 떡 자주 한다. [역량이 없이 사치한 것만 좋아한다.]
- 58) 없는 놈이 친밥 더운밥을 가리랴.
- 59) 없는 손자 환갑 닥치겠다. [오래 기다려 참을 수 없다.]
- 60) 없어(서) 비단 웃/치마. [다른 웃이 없어 입었다.]
- 61) 없으면 제 아비 제사도 못 지낸다.

위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사류에 관련된 관용표현의 수보다 여기 용언에 관계된 경우가 오히려 수치상 빈약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일정한 명사류에 다양한 동사류들이 붙어 그 수가 많아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안경화 1986), 이것만으로 '동사 부분이 ... 관용의미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는 상대적 우위는 명사들에 있기 때문이다. 명사류를 둘러싸고 그와 관련된 관용표현을 우선 연구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동사류를 중심으로 한 연구도 벌리는 것이 좋겠다. 동사류의 연구는 '먹다'와 '빠지다'에 대한 최근 연구(홍재성 1992, 1993)를 볼 수 있다.

4. 맷 음 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던 관용표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정의를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수공기 관계에 놓이면서 화석화되어 통사적으로 굳어진 체 사용되고, 의미상 그 결합 요소들 각개 의미의 단순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지니게 된 특수 표현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표현의 개념이 숙어구문이나 합성표현 또는 관용구를 포함하는 넓은 것이라고 할 때, 우선 이 중에서 숙어구문에 한정하여 2장에서 숙어구문의 통사론적 기술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숙어구문을 엄격하게 통사한 활용—단일어/이개이사전 편찬 또는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의 지원 등등—을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자료체 구성의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의미유형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

다. 우리말의 관용표현 구성에 빈도수가 가장 높은 ‘눈, 손, 입’ 등의 신체부위 명사를 중심으로 자료체를 구성하여 분석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명사의 의미 구분을 통해 관용표현의 의미적 유형화의 가능성을 탐진해 보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위규 1988. ‘관용어의 특성에 대하여’, 부산 한글 7(한글학회 부산지회).
- 김영석, 이상억 1992. 현대형태론, 학연사.
- 김문창 1990. ‘관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심재기 1986.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 11.
- 안경화 1986. ‘한국어 숙어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억 1993.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에서의 처리’, 어학연구 29권 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한정길 1986. ‘숙어표현에 대하여’, 어학연구 22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홍재성 1992. ‘동사 막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2-4. 국어연구소.
- 홍재성 1993. 막다 숙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 어학연구 29권 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Danlos, L. éd. 1988. *Les expressions figées, Langages* 90.
- Gross, M. 1982. Une classification des phrases figées en français,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11-2.
- . 1990.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3: Syntaxe de l'adverbe, Asstril.*
- . 1991. *Les principes de la représentation des formes figées dans le lexique-grammaire du français*(manuscrit).
- Hockett, C.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MacMillan Co., New York.
- Searle, J.R. 197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London.

《Abstract》**An Analysis of Frozen Expressions & Compounds
and their Treatment in the Lexicon****Sang-Oak Lee**

The term "idiom" or "idiomatic/frozen expression" is very broad and can include such concepts as proverbs and polysemy. If we consider idioms merely from the viewpoint of shift in meaning, there are many words which can be classified as idioms, but we treat these as polysemy, a simple expansion of a single word, and exclude them from the present discussion.

First, we have tried to present the tentative system of classification for the syntactic description of Korean idioms which are frozen centered around a verb. The principle that we apply in this paper for the analysis is that of lexicon-grammar of M. Gross: to describe the structure and the properties of idiomatic constructions in the same formal method as common simple sentences. Secondly, we have explained how to represent the semantic types of Korean frozen expressions through the analysis of idioms with a body-noun such as '눈', '손', '입' etc.